산지천갤러리 잠든 사진 춘삼월에 기지개

제주도 기증 김수남 사진
4층 전시장에 상설 전시
2~3층엔 제주 사진가들
'제주해녀의 삶' 초대전

'전문 전시공간' 걸맞게
인력·예산 확대 동반돼야

제주도 산지천갤러리가 수장하고 있는 김수남 사진이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다. 산지천갤러리 운영을 맡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달 26일부터 4층 전시장에서 김수남 상설전을 펼친다.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선구자인 김수남(1949~2006)은 제주 태생으로 2017년 그의 유족들이 제주도에 디지털 파일을 포함 17만여 점을 기증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개관전, 지난해 5월 연장 전시 이후 기증 작품은 사실상 사장(본보 3월 5일자 8면)된 형편이었다.

'바다와 신앙-1985년 김녕리 잠수굿'이란 제목을 단 상설전에는 해녀들의 신앙을 살필 수 있는 김녕리 잠수굿 사진 10여 점이 걸린다. 전시 기간은 6월 23일까지다. 제주문예재단은 앞으로 주제를 바꿔가며 김수남 기증 사진을 상설전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산지천갤러리 2~3층에는 녹색사진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도지회가 후원하는 '제주해녀의 삶' 초대전이 마련된다. 해녀들이 물질을 위해 집을 나선 뒤 귀가하기까지 일상을 사진을 통해 한 편의 이야기처럼 꾸며놓는다. 2017년 12월 김포공항, 2018년 1월 제주공항에서 선보였던 작품들이다.

김수남이 촬영한 1985년 김녕리 잠수굿.

일각에서는 이번 전시를 출발점으로 산지천갤러리가 표방하고 있는 '전문 전시공간'에 걸맞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도내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 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이 튼튼해져야 생활예술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전문미술관 등록으로 공간을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과제가 적지 않다. 산지천갤러리가 추경을 포함해 올해 확보한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하다. 한해 관리비가 5000만원이 넘는 걸 감안하면 기획전은 시도조차 어렵다. 배치 인력은 지킴이 1명이 전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詩(시)로 읽는 4·3 (5)

사월이여 먼 날이여

김시종

내 자란 마을이 참혹했던 때,
통곡이 겹겹이 가라앉은 그 때
겨우 찾은 해방마저
억압에 시달려 몸부림치던
그 때,
상처 입은 제주
보금자리 고향 내버리고
제 혼자 연명한
비겁한 사나이
4·3이래 육십여 년
골수에 박힌 주문이 되어
날이면 밤마다
중얼거려온 한 가지 소망
잠드시라
4·3의 피여
귀안의 송뢰되어
잊지 않고 다스리시라
변색한 의지
바래진 사상
알면서도 잊어야했던
기나긴 세월
자기를 다스리며
화해하라
화목하라

'디아스포라(Diaspora)'는 '씨를 뿌린다'의 의미다. 고향을 떠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경계인(境界人, marginal man)'으로 살면서 제주를 품고 머리와 손은 일본어를 사용한 시인 김시종(金時鐘). 일본공산당에서 이탈하면서 결국 '귀국선'을 타지 못한 채 남한과 북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1990년대 초까지 조선적(朝鮮籍)으로 살았다. 4·3사건에 휘말려 1949년 일본으로 탈출하기 전까지 제주에서 보냈다. 남로당 제주읍당 세포로 활동하면서 산에서 4·3을 3개월 정도 체험했다.

우리가 시인의 '니이가타'에 주목하는 것은 제주 바닷가 해안에 밀어 올려진 물화된 4·3의 죽음이 핏빛 바다로 물들게 한 '달러문명'의 종주국 미국을 인식할 수 있다. 시인은 일본의 계간 학술지 '캉(環)'에 권두시로 4·3 연작시를 발표했다. '새가 말을 하는 가을(鳥語の秋)', '4월이여, 먼 날이여(四月よ, 遠い日よ)', '여정(旅)'등 3편이다. 그의 시에서 4월은 여전히 잔혹한 달이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부처님오신날 제주섬 더 빛나도록

연합합창제·낙화불꽃놀이
탑동선 제주전통문화축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축제가 있다. 제주도 제주불교연합회(회장 문강사 석용 스님)가 주최하고 제주 불교연합전통문화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전통문화 대축제'다.

이번 축제는 지난 13일 신제주 도령 마루(해태 동산) 7호 광장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제주 전역에서 펼쳐진다. '마음애(愛)자비를! 세상애 평화를!' 표어 아래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달 28일에는 제주아트센터에서 제주불교 연합합창제가 마련된다. 관음사 관음자비량합창단, 태고연합합창단, 문강사 합창단, 천룡사관음합창단, 보림사 금강불음봉사단, 법화불음봉사단, 광명사 연화합창단, 관음정사 자비합창단, 제주불교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한마음선원 소년소녀선법합창단,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한다.

5월 3~5일에는 제주전통문화축제를 만날 수 있다. 불자 중심의 축제를 탈피해 도민과 관광객이 더불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 기간 난타공연, 제주전통문화축제 점등식, 불자가요제, 범패의식, 대법회, 제등행렬이 잇따른다.

5월 4일에는 산지천 북성교와 산지교 사이에서 제주 낙화불꽃놀이가 진행된다. 낙화불꽃놀이는 한지로 싼 숯과 소금 뭉치 수백개를 산지천을 가로지르는 긴 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며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희기자

제주색 잠시 접고 전통춤의 찬란한 향연

제주도립무용단 정기공연
동래학춤 등 12종 무대에

지난해 9월 위촉된 제주도립무용단 김혜림 안무자의 색깔을 온전히 내보이는 무대가 마련된다. 이달 26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도립무용단 52회 정기공연 '찬란'이다.

김 안무자는 지난 연말 '자청비-오름에 부는 바람'을 안무했지만 신임 안무자 선발 이전에 이미 정해진 공연 작품이었다. 그래서 이번 '찬란'이 기획 단계부터 그의 손길을 거친 작품이 된다.

그의 선택은 전통춤이다. 전통무용이 품은 한(恨)(무악적 미(美)), 태(態)(형태적 미), 류(流)(즉흥적 미), 흥(興)(놀이적 미) 네 가지 요소를 꼽아 바라법고, 태평성대, 동래학춤, 단선무 등 12종의 전통춤을 펼쳐놓는다. 동래학춤 예능보유자 이성훈 명무, 설장구의 명인 김병섭의 계보를 잇고 있는 성윤선 명무, 전국 국악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진도북춤 염현주 명무가 도립무용단 김혜림 안무자와 더불어 단원들을 지도했다. 광개토 사물놀이가 특별 출연한다.

도립무용단을 운영하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의 현행복 원장은 "전통춤을 보존·승계하는 도립무용단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해 제주다운 창작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청소년 3000원. 문의 064)710-7641.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은 25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군산시립교향악단 백정현 상임지휘자의 객원 지휘로 제145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바이올리니스트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성주 교수가 협연하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차례로 들려준다. 입장료 유료. 문의 064)728-2776.

즐거운 제주목관아 체험

(사)제주역사문화연구소(소장 강용희)가 오는 27일부터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제주목관아와 원도심 일원에서 '즐거운 생생체험, 위풍당당 우리 관아' 프로그램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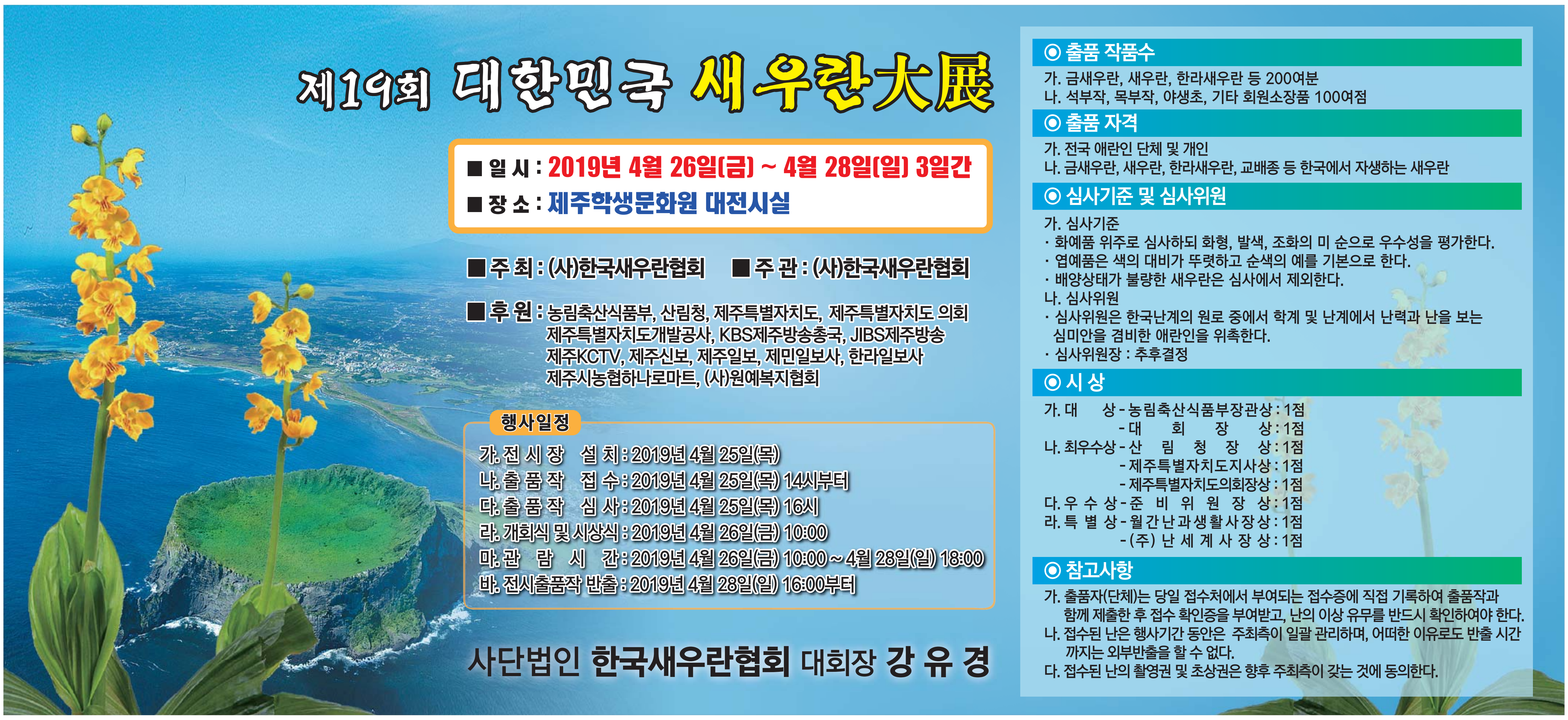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으로 19세기초 양제해난의 취조를 재현하는 전통복 역할극, 호패 만들기, 수노기 만들기, 활쏘기와 검술체험, 원도심 보물을 찾아라 등이 이루어진다. 9~10월에는 '원도심 길 위에서 천년의 유산을 만나다' 답사가 예정됐다. 문의 064)746-1457.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모집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모집한다.

가맹점은 영화관, 공연·전시장, 서점, 음반판매점, 사진관, 숙박, 여행사, 테마파크, 체육시설, 체육용품점, 악기점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가맹점 등록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 후 등록한다. 도내에는 970여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있다. 문의 064)800-9164.

우당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우당도서관(관장 김철용)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창(窓), 책과 여행'을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좌는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강연 8회, 탐방 2회로 짜여진다. '총, 균, 쇠', '사피엔스', '21세기 자본', '정의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인문학 강의 전문가 김성주·신승규 씨가 강사로 초청됐다. 신청은 25일부터 제주공공도서관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문의 064)728-1503.